



**세계 최고의 오페라, 그 감동을 메가박스에서 만나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는 비엔나 오페라하우스, 밀라노 라 스칼라극장의 오페라 공연과 더불어 세계 3대 오페라로 손꼽힌다. THE MET : LIVE IN HD는 세계 정상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최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고화질 영상으로 제작하여, 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오페라 가수의 미세한 표정과 숨소리, 땀방울 하나하나 까지 생생하게 보여줌으로써 마치 현지 오페라 극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여 준다.

**상·영·지·점·프·로·그·램**

〈상영일자 및 시간은 극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센트럴	코엑스	목 동	신촌	분당	킨텍스
월	.	.	.	.	.	.
화	14:00	19:00	19:00	19:00	19:00	19:00
수	.	.	.	.	.	.
목	.	.	.	.	.	.
금	.	.	.	.	.	.
토	14:00	14:00	14:00	14:00	14:00	14:00
일	.	.	.	.	.	.

**메·트·아·카·데·미**

메트 아카데미에서 명강사의 해설과 함께 100분간 하이라이트 영상을 감상하세요  
- 매 작품 개봉주에 한해 1회 상영 -

〈코엑스점 수요일 저녁7시30분 / 티켓소지시 해당작품 전막 50% 할인 제공〉

\* 아카데미는 작품과 강사님의 사정에 따라 날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Met Opera

**LIVE ON SCREEN IN CINEMAS**

**CELEBRATING 10 YEARS OF HD LIVE**



SEASON

**2016**

**THE MET LIVE IN HD**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공연 실황

# THE MET : LIVE IN HD SEASON 2016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THE MET : LIVE IN HD 2016이 ‘클래식의 부활’ 이라는 특별한 테마를 가지고 2016시즌의 문을 엽니다. 오페라계의 슈퍼스타 안나 네프레코와 뉴욕타임즈가 극찬한 한국인 테너 이용훈이 만난 일 트로바토레로 2016 시즌을 시작하여, 니나 스테메의 열연이 기대되는 엘렉트라를 끝으로 화려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연출가와 정상급의 스타 성악가들이 함께하는 2016시즌을 통해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영은 한국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 2016.1.16 - 3.4

### 베르디 일 트로바토레 Trovatore (상영시간 190분)

메트의 러시아 슈퍼스타 안나 네프레코와 드미트리 호보로스토프스키가 동반 출연!  
한국 테너 이용훈이 타이틀 롤인 만리코 역을 맡아 더욱 기대가 큰 공연.

이번 메트 오페라 라이브 HD의 첫 작품은 안나 네프레코가 메트에 서는 처음으로 고뇌에 찬 레오노라 역을 노래하는 〈일 트로바토레〉다. 드미트리 호보로스토프스키가 루나 백작 역을 맡아, 러시아 슈퍼스타 두 명이 주역으로 짝을 이룬다. 타이틀 롤인 만리코 역은 이용훈, 그리고 돌로라 자지크가 간판 배역인 집시 아주체나 역을 노래한다.

- 지 휘 - 마르코 아르밀리아토 • 제 작 - 데이비드 맥비커경
- 출 연 - 안나 네프레코 · 이용훈 · 드미트리 호보로스토프스키 · 돌로라 자지크 외



## 2016.3.5 - 5.6

### 베르디 오텔로 Otello (상영시간 210분)

야닉 네제 세경이 지휘하고 바틀렛 셰어가 연출을 맡은 이번 시즌 새 프로덕션.  
안토넨코의 세익스피어 비극 캐릭터와 에스 데블린의 메트 첫 무대디자인에 관심 집중!

베르디의 걸작 〈오텔로〉는 야닉 네제 세경이 지휘하고 바틀렛 셰어가 연출을 맡은 이번 시즌 새 프로덕션이다. 무대 디자이너 에스 데블린이 메트에 처음 데뷔한다. 데블린은 브로드웨이에서 활약하면서 코벤트가든 로열오페라와 라 스칼라 극장을 비롯한 세계적인 오페라극장에서도 작업해왔다.

- 지 휘 - 야닉 네제 세경 • 제 작 - 바틀렛 셰어
- 출 연 - 알렉산드르 안토넨코 · 소냐 온체바 · 젤리코 루치치 · 디미트리 피타스 · 쿤터 그로이스비크 외



## 2016.5.7 - 6.3

### 바그너 탄호이저 Tannhaeuser (상영시간 230분)

중세 기사들의 노래경연대회를 소재로 사랑의 본질을 탐구한 바그너의 걸작.  
사랑을 두고 겨루는 두 세계의 라이벌로 에바 마리아 베스트브로크와 미셸 드 영이 열연!

제임스 레바인이 2004년에 메트에서 공연한 〈탄호이저〉의 리바이벌 공연 지휘를 맡았다. 요한 보타가 메트에서는 처음으로 이 어려운 탄호이저 역을 노래한다. 페터 마테이는 볼프람 역으로 메트에서 그의 두 번째 바그너 배역에 도전한다. 엘리자베트와 베누스는 탄호이저의 사랑을 두고 겨루는 두 세계의 라이벌이다.

- 지 휘 - 제임스 레바인 • 제 작 - 오토셴크
- 출 연 - 요한 보타 · 에바 마리아 베스트브로크 · 미셸 드 영 · 페터 마테이 · 쿤터 그로이스비크 외



## 2016.6.4 - 7.1

### 비제 진주 조개 잡이 Les Pêcheurs de Perles (상영시간 165분)

찬란한 고음의 소프라노 디아나 담라우가 고난도의 여주인공 레일라 역을 맡았다!  
남성 이중창 〈신성한 사원에서〉, 테너 아리아 〈귀에 익은 그대 음성〉을 감상할 기회.

1916년 테너 엔리코 카루소가 처음으로 메트에서 노래한 이 풍요롭고 선율이 넘치는 오페라를 이번에는 존 아담스의 오페라 〈닥터 아토믹〉으로 메트에 데뷔했던 페니 울코크의 연출로 선보인다. 디아나 담라우가 아름다운 여사제 레일라 역을맡았다. 오페라의 가장 잘 알려진 명곡 남성이중창 ‘신성한 사원에서’ 를 감상할 수 있는 작품.

- 지 휘 - 잔안드레아 노세다 • 제 작 - 페니 울코크
- 출 연 - 디아나 담라우 · 매튜 플렌자니 · 마리우쉬 크비에치엔 · 니콜라 테스테 외



## 2016.7.2 - 8.5

### 푸치니 투란도트 Trandot (상영시간 200분)

청춘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내 차례로 죽이는 냉혹한 공주 투란도트  
스웨덴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니나 스테메 메트에서의 첫 고난도 무대에 도전하다

스웨덴의 드라마틱 소프라노 니나 스테메가 메트에서는 처음으로 푸치니의 고난도 배역인 ‘얼음공주’ 투란도트 역을 노래한다. 마르코 베르티는 목숨을 걸고 투란도트에게 청혼하는 칼라프 왕자 역을 맡았다. 지휘자 파올로 카리나니가 프랑코 제피렐리의 화려하고 장대한 1987년 프로덕션을 이끈다.

- 지 휘 - 파올로 카리나니 • 제 작 - 리차드 에어
- 출 연 - 니나 스테메 · 아니타 하르티히 · 마르코 베르티 · 알렉산더 침발류크 외



## 2016.8.6 - 9.2

### 푸치니 마농 레스코 Manon Lescaut (상영시간 205분)

화려한 삶을 꿈꾼 시골 처녀 마농의 파리 진출과 몰락을 그린 18세기 고전소설의 오페라화  
크리스틴 오펜라이스와 요나스 카우프만이 비운의 연인 역할을 열연한 매혹적인 무대

크리스틴 오펜라이스와 요나스 카우프만이 비운의 연인 역할을 맡은 푸치니의 〈마농 레스코〉는 화려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은 시골 처녀가 파리로 진출하는 이야기를 다룬 고전 소설을 토대로 한 작품이다. 메트 상임지휘자 파비오 루이지가 지휘를 맡았다.

- 지 휘 - 파비오 루이지 • 제 작 - 리차드 에어
- 출 연 - 크리스틴 오펜라이스 · 요나스 카우프만 · 마시모 카발레티 · 브린들리 셔래트 외



## 2016.9.3 - 9.30

### 푸치니 마담 버터플라이 Madama Butterfly (상영시간 210분)

미 해군 장교와 결혼했다가 버림받은 일본 게이샤의 가슴 저미는 비극적 스토리.  
메트에서 처음으로 이 역을 노래하는 크리스틴 오펜라이스의 새로운 해석

메트 라이브 HD에서 처음으로 크리스틴 오펜라이스가 관객의 가슴을 저미는 마담 버터플라이 역을 맡았다.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은 앤서니 밉겔라의 2006년 프로덕션이다. 로베르토 알라냐가 버터플라이의 사랑의 꿈을 짓밟는 무심한 핑커톤 역을 연기한다.

- 지 휘 - 카렐 마크 시송 • 제 작 - 앤서니 밉겔라
- 출 연 - 크리스틴 오펜라이스 · 로베르토 알라냐 · 드웨인 크로프트 · 마리아 지프차크 외



## 2016.10.1 - 11.4

### 도니체티 로베르토 드브뢰 Roberto Devereux (상영시간 210분)

엘리자베스 여왕과 젊은 연인의 이야기를 다룬 도니체티 ‘튜더 3부작’ 의 마지막 작품  
메트에서 사극 연출로 격찬을 받는 데이비드 맥비커가 선보이는 화려하고 의미심장한 무대

도니체티가 작곡한 ‘튜더 3부작’ 의 마지막 작품인 이 오페라는 자신이 사랑하는 젊은 연인의 사형집행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노년의 엘리자베스 1세 이야기를 그렸다. 3부작 중 〈안나 볼레나〉와 〈마리아 스투아르다〉를 이미 메트에서 연출한 데이비드 맥비커가 이 3부작 완결판의 연출로 메트에 돌아온다.

- 지 휘 - 마우리치오 베니니 • 제 작 - 데이비드 맥비커
- 출 연 - 손드라 라드노프스키 · 엘리나 가랑차 · 매튜 플렌자니 · 마리우쉬 크비에치엔 외

## 2015.11.5 - 12.2

###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엘렉트라 Elektra (상영시간 130분)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에게 복수하는 그리스 공주 엘렉트라의 격정적 비극  
천재 연출가 파스리스 세로의 서거 직전 연출인 2014년의 기념비적 프로덕션

그리스 공주 엘렉트라를 주인공으로 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이 격정적인 비극을 올해 메트에서는 천재적인 연출가 파스리스 세로의 서거 직전 연출인 2014년 프로덕션으로 무대에 올린다. 2009년 아나체크의 〈죽은 사람의 집으로부터〉로 찬사를 받으며 메트에 데뷔한 지휘자 예사 페카 살로넨이 〈엘렉트라〉로 다시 메트에 돌아온다.

- 지 휘 - 예사 페카 살로넨 • 제 작 - 파트리스 세로
- 출 연 - 니나 스테메 · 아드리아나 피에츨카 · 발트라우트 마이어 · 부르크하르트 울리히 · 에릭 오웬스 외